

대손세액공제요건 및 적용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①에 의한 대손금 인정사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상법 제122조·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2년 또는 1년 등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 제64조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행위에 따른 채권이라도 민법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음법상 어음의 소멸시효규정은 상법 규정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어음법상 소멸시효규정은 어음 자체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본래의 매출채권에 대한 시효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조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의 적용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 제51조는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는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파산이 선고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채권 및 채무자 재산이 국가 등에게 강제 집행 처분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수표 및 어음

어음·수표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어음의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그 어음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제시기간경과 후에 제시한 때에는 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하므로, 어음의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기간을 넘겨서 제시된 어음에 대하여는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어음발행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권은 존속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그 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사유

이밖에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받거나 대손처리 요구받은 채권,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중소기업청장 등이 인정한 것 등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절차 및 대손사실입증 서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등(파산·강제집행시), 가정법원 판결문(사망·실종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안(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 부도어음이나 수표사본(부도어음·수표시) 등이 있다.

◆ 대손사실 입증서류 ◆

유형별	첨부서류
파 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획서
사망·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획서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화의인가안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원본)
상법상의 소멸시효 및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매출(입)세금계산서,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기 타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의 회수불능 입증서류